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히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
어다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台洛
編輯人兼 韓鍾仁
主 幹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81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북합동) 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시조부군 생가터 복원 및 성역화사업에 함께 동참합시다 청주한문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위대한 사업



한태락 중앙종친회장

존경하는 청주한문의 일가 여러분!
심화되는 이상기운의 영향으로 폭염과 폭우에 극심한 가뭄 등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긴 여름을 지나 어느덧 일교차가 크고 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종친회는 중점 숙원과업으로 시조부군 탄생유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조부군의 생가터 복원 및 성역화사업 완수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성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성역화사업은 선조님의 높은 뜻을 기리고 우리 청주한문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위대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청주한씨의 역사는 3천여년 전 기자 조선을 세운 문성대왕 기자(箕子)로부터 계출되었는바 이는 청주한씨 씨족사의 시원이 유장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문종이 이처럼 수천년을 굴기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성씨 가운데서도 삼한갑족으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

보다도 조상에 대한 숭모(崇慕)의식이 가문의 소중한 정신적 가치로 존중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주한씨의 시조이신 태위 위양공 휘 란(太尉 威襄公 諱 蘭)께서는 지금의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 227-8번지에서 휘 지원(智原)의 삼남으로 탄생하시었습니다. 태위공이 태어날 때 천지가 감응하여 인근 삼십리 산야에 땀(汗)이 흠뻑 흘렀다하여 토한(土汗, 吐汗)리로 부르다가 공이 고려공신으로 명성이 알려져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곳 이라고 토란(吐蘭)리로 고쳐지었고 1880년 조선팔도를 13도로 개편할 때 한란(韓蘭)의 출생지이기 때문에 난곡(蘭谷)리로 개칭되었다고 합니다. 시조부군께서는 먼 앞날을 내다보시는 선견지명의 통찰력으로 머지않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강한 신념으로 백성들을 위해 선진적인 영농방법에 관심을 가지셨고 문덕을 닦아 시대를 교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난곡리 산등 너머 방화동에 초당을 세우고 유학을 강론하시었습니다. 중년에 이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가 넓고 비옥하며 인접이 많이 나왔던 청주로 이주하여 무농정을(務農亭)건립하여 농사를 권장하고 방정(方井)을 파 갈증을 해소하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등 공익을 위해 헌신하시었습니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이듬해 919년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훌륭하게 완수하였고,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청주를 본영으로 삼아 견훤의 군사들과 맞서 싸우게 되자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였고 직

접 종군하여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공으로 태조 23년인 940년에 삼한벽상공신이라는 개국후의 칭호와 삼중대광문하태위라는 최고의 관작을 하사 받으셨으며 고려 태조가 삼한공신들에게 토성의 관향(貫鄉)을 나누어 정해줄 때 청주를 관향으로 삼도록 하여 이때부터 청주한문의 새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사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서세하시자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조정에서 생전에 이룬 위업을 기려「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 다. 공의 후광에 힘입어 후손들 가운데 충의를 실천한 군자는 물론이고 학문이 높고 나라의 동량이 된 고관대작들이 무수히 나왔고, 조선조에는 여섯분의 왕비를 배출하여 청주한문이 명실상부한 화문갑족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중앙종친회는 시조탄생유지인 황간면 난곡리 227-7소재 164평의 부지를 1991년에 매입하였고, 2010년에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227-6소재 148평을 추가 매입하여 312평의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후손들의 정성어린 헌성금 10억원으로 기적비와 송시비를 세우고 조경을 하고 기와를 얹은 자연석 담장을 둘

려쌓아 2011년 9월에 청주한문의 성지 청한각(淸韓閣)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영동군지 초(抄)에 토란리는 황간면에 있고 고려 태위 한란의 태지(胎地)이기에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고, 황간읍지 초(抄)에는 고려태위 휘 한란의 태생지가 본읍 동면 토란리에 있으니 지금까지 그 집은 해읍(該邑)으로부터 매년 개초(蓋草)를 하여 천추(千秋)에 전하도록 한다는 문헌으로 보아 시조부군 탄생지가 그만큼 보존의 값진 가치가 있음을 소중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2차 성역화사업을 통해 시조부군께서 탄생하고 사셨다는 타인 소유의 부지(난곡리 227-8) 259평을 지난 6월 매입하여 부지를 571평으로 확장 후 생가터를 복원하였고, 전문기관의 자문 용역을 통해 역사관 또는 기념관, 부대시설 등을 건립하여 명실상부한 시조부군 탄생지의 성역화사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이 수반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대역사(大役事)로 우리가 힘을 합쳐 과업을 완수한다면 그 가치와 보람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중앙종친회 또한 일가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일가분들의 강령하심과 가내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태락 拜上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 헌성금 3억 9,730만원 답지 (8월 말 현재)

- | | |
|----------------------|-----------------------|
| • 찬성공파종중(회장 유광) 3억원 | • 절제공파종중(회장 연구) 5천만원 |
| • 태락중앙종친회장 1천만원 | • 삼재관리위원회(회장 동희) 5백만원 |
| • 삼랑수석부회장 5백만원 | • 대곤몽계공파회장 5백만원 |
| • 청한산악회(회장 삼랑) 5백만원 | • 의구제전부회장 5백만원 |
| • 양혜공파종중(회장 광수) 3백만원 | • 제전위원회(회장 의구) 3백만원 |
| • 상락서울종친회장 2백만원 | • 서울종친회(회장 상락) 1백만원 |
| • 전북종친회(회장 영교) 1백만원 | • 윤동자문위원 1백만원 |
| • 회태(대구경북) 5십만원 | • 달섭자문위원 3십만원 |
| • 태희 2십만원 | • 호동 2십만원 |
| | • 덕영(서울 압구정) 1십만원 |

시조부군탄생지 성역화사업 헌성금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9901-04-195748 예금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청한각 전경

삼재(三齋), 6·7세조 유허지(遺墟地) 정비 완료

지난 6월 20일 고유제 봉행, 청주한문의 위상 제고 기대



유허지 정비 후 고유제를 봉행하고 있다

삼재관리위원회(회장 동희)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한시랑동)에 있는 6세조 예빈경공(諱 光胤)과 7세조 문혜공(諱 康)의 유허지에 대한 정비 및 정화사업을 완료하고,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삼재관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유제를 봉행했다.

구수리 한시랑동 유허지는 고려시대에 6세조 예빈경공과 7세조 문혜공이 입향하여 살았던 곳으로, 시랑(侍郎) 벼슬을 한 한씨(7세조 강)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한시랑동(韓侍郎洞)으로 불리우고 있다.

당시 9천여 평의 유허지 일대에는 고려 충렬왕의 배려로 토성을 쌓고, 1천 5백여 평의 연못 내에는 영호정(映湖亭)과 안락정(顔樂亭)이라는 정자를 세우고, 7세조가 이곳에 거주하며 학문연구에 힘을 쏟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국난과 오랜 세월 등으로 유품과 유허지는 보존되지 못하고 말았다.

현재 남아있는 이 곳 유허지(현재 1천 4백여 평)는 영호정이 있었던 자리로, “한시랑공 유허비”와 “한시랑동 기적비”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고 잡초로 뒤덮여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위치 또한 타인들의 농경지 가운데 있어서 찾는 일가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유허지 정비는 지역의 뜻있는 일가들은 물론 삼재의 숙원사업으로 여

겨져 왔으나, 선뜻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수 년을 지내 오다가 이번에 1억 1천여만 원을 들여 보강토 옹벽시공, 평탄 및 잔디작업, 유허비 재설치, 수목 울타리 설치, 진입로 개설 및 콘크리트 포장 등을 실시하였다

동희 삼재회장은 ‘이번에 유허지 정비 및 정화사업이 완료 됨으로써, 지역에서 청주한씨의 입향촌(한시랑동)과 입향조에 대한 관심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청주한문의 위상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시랑동 유허지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추원재와 모원재 및 묘소 등과 함께 우리 청주한문 일가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며, 선조님들의 유지에 대한 일가분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6세 예빈경공은 고려 때 문신으로 문과에 급제해서 조정대부(朝正大夫)로 예빈경(禮賓卿)을 역임하고 금자광록대부를 봉해 사공(司空)과 좌복야(左僕射)를 역임하시었으며, 7세 문혜공은 16세 때에 국자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장원하였고 광정대부 도첨의중찬(匡靖大夫 都僉議中贊)에 이르렀으며 수문전 대학사(修文殿 太學士)때에 국사를 편찬했으며 전리사사(典理司事)를 거쳐 세자사(世子師)를 하였다.

(삼재관리위원회 동희회장)

문정공배위 570주기 기신제 봉행

문정사 영모재에서, 임시총회도 개최



문정공배위 기신제 봉행 기념

문정공파종회(회장 성익)는 지난 6월 10일(음 5월 15일) 성익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종원 등 7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율동공원 내 문정사 영모재에서 문정공배위의 570주기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 경우 삼등공파회장, 아헌관에 이덕 경기도종친회장, 종헌관에 관우 관관공파회장, 축관에 상현 영흥공파회장이 분방되었으며 종호 前영흥공파회장의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성익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시총회와 문정공배위의 기신제 봉행에 경향 각지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문정공파 후손분들과 타 종파에서 오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한 협조와 더불어 훌륭하신 선조님의 유지를 받들어 화합돈목하며 종사 발전을 위해 일가분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하였다.

문정공(諱 繼禧)의 배위이신 정경부인 함양여씨(貞敬夫人 咸陽呂氏)께서는 문정공부군이 33세 되신 1455년에 졸하셨으며 묘는 문정공부군의 상조이다. 부친은 좌랑 증 참판이신 휘 계(楷)이시고 외조는 청송 심의구(沈義龜)이시다.

한편 당일 기신제 봉행에 앞서 진행된 임시총회를 통해 종중의 법인등록에 따른 법인세 대두 등 회계연도 변경의 필요성에 의해 정기총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정관개정안과 족보 불법 입보차 처리 확인안, 문정사 건축 미수금 확인안 등 종사 현안사항을 심의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국가사업(불교박물관)으로 진행된 신도비 탁본은 액자로 제작하여 사당 내에 영구히 보존토록 전시하였다.

(문정공파종회 성익회장)

마포구종친회 정기월례회 개최

신임 회장에 순자 중앙회부녀부장 선임

마포구종친회(회장 영희)는 지난 6월 19일(목) 17:00 영희회장 및 회원분들과 중앙회 집행부 임원(근준, 일용, 상렬, 종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푸짐한 곱창집 식당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였다.

임원개선을 통해 신임 순자회장을 선임한 후 회장 이취임 및 종사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영희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회장직을 마침에 감사함을 전하고 신임 집행부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하였다.

신임 순자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원의 화합돈목과 종친회의 운영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바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전임 영희회장께



순자 신임회장 취임 기념

공로패와 더불어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16일(토)에는 일영유원지에서 하계야유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종친회는 책자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는 사기집단이 일가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한씨종사보감’이라는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면서 ‘청주한씨중앙종친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가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중앙종친회에서는 어떤 책자의 구매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혹여 책자를 받으신 분은 발송처로 반송해서 피해를 방지토록 하시고 중앙종친회를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오면 즉각 중앙종친회(02-720-6370/1)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 중앙종친회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회장단, 중앙종친회 내방

부원군 문중 예방 및 환담, 종무 교례회

지난 6월 19일(목) 11:0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귀남 이사장 및 이원 황사손을 비롯해서 부이사장, 능봉향회장, 대외협력위원장, 여성이사 등 집행부 회장단이 중앙종친회를 내방하고 상호 친교와 환담, 종무 교례회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본 내방은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이귀남 이사장께서 부원군 문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중앙종친회에서는 태락 회장을 비롯해서 조선조 부원군 및 부마 문중의 회장단과 집행부 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례, 참석 회장단 소개, 태락회장과 이귀남이사장 및 이원황사손의 인사에 이어 상호 인사 및 환담, 종무협의를 의견 등을 교류 후 이귀남 이사장은 태락 회장께「금석록」을 전달하며 감사함을 표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찬란한 조선왕조를 계승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회장단의 방문을 기쁘게 환영한다. 빛나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회장단(중앙 상단)과 본 회 회장단(하단)

명성과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며 대한민국의 근원을 다져준 조선왕조의 업적 중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으뜸이며, 현재와 미래로의 선진 국가로서의 근간을 견고히 다져줌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 청주한씨문중에서도 조선조에 여섯분의 왕비와 네분의 부마를 비롯해서 큰 공적으로 기여해주

신 정승과 상신, 공신 등 역사적인 인물을 많이 배출하였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금번을 계기로 상호 교류와 친목을 돈독히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인사를 전하였다.

이귀남 이사장은 방문과 인사가 늦어서 죄송한 마음이다. 청주한문은 왕비, 부마와 정승 판서 등 많은 인재가 함께하며 조선왕조를 훌륭하게 이끌

어 주심에 감사드린다. 이번을 계기로 자주 연락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환대해 주신 청주한씨 문중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씀을 전하였으며, 이원 황사손께서는 인·의·예·지·신에 호국이념과 승조돈목을 근간으로 공신 대신 등 조선왕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명문 청주한문을 만나뵙에 반갑고 기쁘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리며 인사가 늦었음에 송구한 마음이다. 앞으로 우리는 조선왕조를 이끌어오신 선조님의 업적과 전주이씨의 제향 정립 등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은 시대에 맞게 바로 세워 훌륭한 역사를 복원하고 재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금번을 계기로 자주 교류하면서 조선왕실과 가까운 청주한씨문중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종무 교례회 후 인근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함께한 후 자주 교류할 것을 약속하며 일정을 마쳤다. 본 회를 방문해 주신 전주이씨대동종약원 회장단(이귀남 이사장, 이원 황사손, 이원하·이원재·이원주 부이사장, 이근호·이원호·이경훈 능봉향회장, 이유섭 대외협력위원장, 이복례 여성이사, 이규원 주필)분들께 감사드린다.

집행부 임원 및 성역화사업실무추진위원 연석회의 개최

시조부군 생가터 복원 및 기념관 등 건립 추진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임원 및 추진위원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과 8월,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태락회장을 비롯해 삼랑·길수·선교·근준·진수·광수회장, 동회감사 등 임원과 실무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임원 및 시조탄생지성역화사업실무추진위원 연석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매입이 완료된 시조부군 생가터를 복원한 후 전문기관의 자문용역 의뢰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성을 감안해 역사관 또는 기념관과 편의시설 등을 건립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현재 시조부군의 생가터(난곡리 227-8번지 대지 259평 및 건물 29평)

는 매입 및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한 후 기존 건물 또한 철거를 완료하여 생가터 복원공사를 마친상태이며 후속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에 자문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후속업무 추진에는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종과문중 및 광역시도와 종원분들을 대상으로 성금모금을 위해 힘써 홍보하고 독려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본 성역화사업은 청주한문의 위상을 제고하는 위대한 사업으로 전국 청주한문 종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인천광역시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결산·예산(안) 승인 및 경 신임회장 선임



인천시종친회 제57회 정기총회

인천광역시종친회(회장 천식)는 지난 6월 7일(토) 11:00 미추홀구 송의동 소재 송의가든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임기가 만료된 천식회장을 후임으로 경(판사공파)회장을 선임하였다.

천식회장은 많이 참석해 주신 내빈 및 회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 후 그동안 임원 및 회원분들의 성원의 덕으로 무사히 임기를 마침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집행부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경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많이 참석해 주시고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내빈과 임원 및 회원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한 후 전임 집행부의 수고의 덕으로 종친회의 기반이 탄탄하게 구축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확대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종친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고 임원 및 일가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충성공(忠成公.諱 明澮.14世) 지식명문(誌石銘文)



충성공 한명회 영정

분청사기철화 한명회 지식(粉靑沙器鐵畫 韓明澮 誌石, 충남 유형문화유산 제282호)은 현재까지 알려진 15~16세기 지식 중 방형 형태, 표제문·지문·묘지명의 형식 등 24장(가로 20.5~23cm, 세로 31~32.5cm)의 완벽한 구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지식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자료로 유교적 예식에 따라 최대한 국가적 예우를 갖춰 만들어졌다고 평가된다. 공주 학봉리 요지에서 제작된 이 지식에는 충성공의 가계도, 조선 전기 계유정란 때 왕권을 바꾸는데 중심역할을 한 행적, 부관참시 후 새로 예장한 풍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식의 부장과 제작시기가 명확하고 장편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물이 온전히 남아 있고, 지식의 형태와 양식에서 기존의 분청사기 지식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이 있어 조선시대 도자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충청남도 기념물인 천안 충성공 묘역에서 2000년 도굴됐다가 2009년 되찾았으며, 충성공파종중회(회장 선교)가 천안박물관에 기탁해 보존·관리되고 있다.

충성공 한명회(1415~1487)는 조선전기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예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순왕후와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의 아버지로서 두 왕의 국구라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자(字)는 자준(子濬). 호(號)는 압구정(狎鷗亭)

지면 및 분량 관계로 본 281호(제1~제12)에 이어 282호에서 「제13:정해년 한명회 병으로 은퇴, 무자년 세조 돌아가심. 제14:남이 정변, 예종 돌아가심. 제15:장서각 설치 건의. 제16:명의 건주의 정벌에 군대를 다시 일으킬 것을 청하다. 제17:명나라 사신으로 가다(왕비와 세자 책봉). 제18:한명회가 병이 깊어 휴양하다(풍덕 별장). 제19:한명회 사망. 제20:한명회 성품을 평하다(탄년에 압구정에서 지냄). 제21:한명회 성품을 평하다. 제22:한명회 후손 가계. 제23:한명회 후손 가계 및 최숙생의 명(한명회의 공덕을 기리는 시). 제24:최숙생의 명(한명회의 공덕을 기리는 시)」 원문과 번역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충성공 한명회 지식

충성공 한명회 지식 원문 및 역문

원 문	역 문
제1. 한명회의 인적사항 有明朝鮮國 輸忠衛社協策靖難 同德左翼 保社炳幾定難翊載 純誠明亮經濟弘化佐理 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口 兼領 經筵 春秋館 弘文館 藝文館 觀象監事 世子師 江原黃海平安咸吉道都體察使 判兵曹事 上黨府院君 贈諡忠成韓公墓誌銘 并序 朝散大夫 守弘文館典翰 知製教兼	유명 조선국 수충위사협책정난 동덕좌익 보사병기정난익재 순성명량제홍화좌리 공신이며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 춘추관 홍문관 예문관 관상감사 세자사 강원 황해평안 함길도 도체찰사 판병조사인 상당부원군 증시충성한공의 묘지명과 병서 조산대부 수 홍문관전한 지제교 겸
제2. 묘지명의 찬자 최숙생의 인적 사항과 한명회의 선대 가계 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 藝文館應敎 崔淑生撰 公諱明澮字子濬 淸州人 遠祖蘭佐麗祖有功 七大祖光胤 朝靖大夫 禮賓卿 光胤生康 匡靖大夫 都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諱文惠 康生謝奇 僉議右司議大夫 寶文閣提學 謝奇生渥 宣力佐理功臣 壁上三韓三重大匡 上黨府院君 諡思肅 渥生	경연 시강관 춘추관 편수관 예문관 응교 최숙생이 글을 짓는다. 공의 이름은 명회요, 자는 자준이며, 청주인이다. 원조는 난이니, 고려 태조를 보좌하여 공이 있었다. 7대조 광윤은 조청대부 예빈경이다. 광윤은 강을 낳았으니 광정대부 도침의 중찬 수문전 대학사로서 시호는 문혜이다. 강은 사기를 낳았으니 침의 우사의대부 보문각 제학이다. 사기는 악을 낳았으니 전력좌리공신 벽상삼한중대광 상당부원군으로 시호는 사숙이다. 악은 (공의를) 낳았으니
제3. 한명회의 선대 가계 公義 政堂淸城君 公義生修 輸忠贊口 臣 匡靖大夫 判厚德府事 右文館大提學 知春秋館事 淸城君 諡文敬 於公爲會祖 子尙質 資憲大夫都評議使司事 藝文春秋館大學士 諡文烈 子起 承義郎 行司憲監察 贈議政府領議政 妣李氏 贈貞敬夫人 奉正大夫 直藝文館提學之女 麗興望族也 永樂乙未十月己丑生公 既長骨	공의이니 정당 청성군이다. 공의는 수를 낳았으니 수충찬화공신 광정대부 판후덕부사 우문관대제학 지 춘추관사 청성군으로 시호는 문경이니 공에게는 증조가 된다. 아들은 상질이니 자헌대부 도평의사사 예문관 춘추관 대학사이다. 시호는 문열이다. 아들은 기이니 승의랑 행사헌감찰 증 의정부 영의정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이씨는 증정경부인이니 봉정대부 직예 문관제학 적의 따님이다. 여흥의 망족이다. 영락 을미년 10월 기축일에 공을 낳았으니 이미 장골과

〈5면으로 계속〉

〈4면에 이어〉

제4. 한명회의 행적 骨壯偉儀觀秀 發腹上有黑子象台符斗拯 公雖綺紈而早喪怙恃落魄不自振 叅判韓尙德文烈公之弟也於公爲從祖往依焉 叅判公有藻鑑常稱 此吾家千且助也 宰相皇甫仁一見呼 爲國士欲以女歸之 公不肯 叅判欲試公意問曰 彼方當權用事若得托婚富貴可立致公正色曰 當受知人主乘名聲於竹帛耳憑籍婦勢	골격이 장성하고 위의가 늙름하여 보기에 빼어났다. 배 위에 검은색의 별모양이 있었다. 공은 비록 넉넉한 형편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어려운 때를 맞아 혼자 일어서지 못하였다. 참판 한상덕은 문열공의 동생이니 공의 종조부이다. 가서 의지하니, 참판공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으니 항상 칭하기를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을 나중에 일으킬 것이다"하였다. 재상 황보인이 한번 보고 '국사'라 하여 딸을 시집보내려 하였으나 공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판이 공의 뜻을 시험하고자 묻기를 "그는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 만약 혼례를 받아들인다면 부귀하게 될 것이다"하니 공이 바른 안색으로 말하기를 "마땅히 사람됨을 알아보는 것은 주로 죽백에서의 명성일 따름이니 지어미의 권세에 힘입어
제5. 정인지와 권남과의 우정 覬覬榮路非吾願也 叅判公喜曰 汝之志尙如此 興吾宗者非汝誰耶 從河東鄭文成公受經史 博覽經籍所得旣當然 蹭 場 屋輒 自嘆曰 窮達在天何必效老儒腐心文字間于 遂緣義不就乃與吉昌權口擘結爲心形友不治產業視世間浮利湊如也 壬申公年三十八輔敬德宮直 公雖在布素深念國事時人未之測也 是年秋	영화스런 길을 바라보겠습니까. 저의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참판공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너의 뜻이 굳기가 이와 같으니 우리 가문을 일으킬 사람이 네가 아니면 누구겠느냐"하였다. 하동 정문성공을 따라 경사를 배우니, 경적에 널리 밝아 그 얻은 바가 이미 컸다. 그러나 과거에는 실패하여 스스로 탄식하여 말하기를 "궁하고 달하는 것은 하늘에 있으니 어찌 반드시 부유의 슬퍼하고 상심하는 것을 본받겠는가"하였다. 드디어는 그 뜻을 꺾고 나아가지 않았다. 길창 권공 람과 더불어 마음의 친구를 맺어 살림살이를 돌보지 아니하고, 세간의 성리에는 담담하였다. 임신년에 공의 나이 38세로 경덕궁직에 보직되었다. 공이 비록 포소를 입었으나 국사에 대한 뜻이 깊음을 사람들이 알았다. 그해 가을에
제6. 권람과의 대화 公自松京還過權公擘 是時權擢魁科已顯矣 敍間闊回謂曰 今 主小國危安平君塔睥睨神器 禍亂之發 非朝則夕娶婦 雖微尙憂宗周 君獨無憂國之念乎 權曰奈何 公曰 國勢已傾非得撥亂之才 何以濟之 聞 晉陽大君豁達英武可興共定大事 盖微辭以觀其志 權曰 正吾意也 卽以公語白之 且曰韓某眞今之管樂也 明公欲守延陵之節則已矣 如欲平治斯世	공이 송경으로부터 돌아와 권람공을 만나게 되었다. 그 때에 권공은 과거에 합격하여 있었다. 말하기를, "지금 주상은 어리고 국가는 위태로운데 안평군 용이 신기를 노리고 있어 화란이 시작되는 것이 아침저녁으로 이르렀으니 비록 작은 것이라도 어찌 국가의 근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대는 홀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가" 하니, 권람이 말하기를 "어찌 할 것인가" 공이 말하기를 "나라의 기운이 이미 기울었으니 난을 일으킬 재주있는 자를 얻지 않았다면 어찌 세상을 구하겠는가. 진양대군이 활달영무하여 가히 더불어 큰 일을 일으킬만 하니 조용히 건의하여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권람이 "바로 내 뜻과 같다"고 하였다. 곧 공의 말로써 건의하고 또 말하기를 "한모가 진실로 지금의 관중·악의가 분명합니다. 공께서 연릉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모르거니와, 이 세상을 평안히 다스리고자 한다면
제7. 계유정변 非此人不可也 立命召公 公以幅巾入謁一見如舊 癸酉十月十一日舉義景從者皆會 世祖潛邸 有持疑者 公拔劍曰 有生必有死人所難免 死於社稷不有逾於徒死乎 有異議者當斬之 衆皆曰 死生當聽公 世祖卽親率士往劉其魁 卽日餘黨悉死 翌日拜通德郎卽軍器判官 又數日加朝奉試司僕少尹賜靖難功臣 甲戌夏加	이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하였다. 천명을 세워 공을 부르니 공이 폭건으로서 배알하니 한번 보고 옛 친구와 같이 대하였다. 계유 10월 10일에 뜻을 세워 따르는 자가 모두 세조의 잡저에 모두 모였으나 의심을 품는 자가 있었다. 공은 칼을 뽑아들고 크게 외치기를, "세상에 나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마다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사직을 위해 죽는다면 그저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른 마음을 갖는 자는 마땅히 베어 없앨 것이다. 무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모두 공을 따를 것이다. 세조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나가 원흉을 제거하고 그 나머지 무리들도 모두 평정하였다. 다음날 통덕랑 군기판관에 발탁되었다가 이윽고 사복소윤에 천직되고, 정난공신의 호를 내렸다. 갑술년 여름에
제8. 한명회의 관로 朝散 未幾加中直陞尹 秋拜通政大夫 承政院同副承旨 乙亥夏世祖 受禪陞右副承旨尋陞左副承旨 秋賜佐翼功臣陞右承旨 丙子秋陞左承旨冬陞都承旨 丁丑秋超授崇政大夫吏曹判書封上黨君 冬移兵曹判書 是歲 忠淸慶尙全羅三道不熟 命公爲巡察使 公盡心賑恤民賴以活 上遣使賜衣慰之 先是綾城君具致	조산대부가 되었고 오래지 않아 중직을 받고 윤으로 승진하였다. 가을에는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를 제수받았고, 올해 여름에는 세조께서 선양받으니 우부승지에 올랐다. 좌부승지에 오른 후 가을에 좌익공신의 호를 하사받고 우승지에 올랐다. 병자년 가을에 좌승지에 올랐고 겨울에 도승지로 승진하였다. 정축년 가을에 승정대부 이조판서를 제수받고 상당군에 봉하여졌다. 오래지 않아 병조판서로 옮겼다. 이 해에 충청 경상 전라가 편안치 않아 공이 순찰사가 되었다. 공이 진심으로 백성을 진휼하여 백성들이 공을 깊이 신뢰하였다. 임금께서 사신을 파견하여 옷을 내리고 위로하였다. 이에 앞서 능성군 구치
제9. 능성군 구치관의 건의 寬建議 三道州縣犬牙相錯疆界不正宜割大竝小 以就其中且知世助羅等浦蓮花浴池等島皆可罷 公奏曰州縣錯置得大小相維之制況畫界已久一朝變更民必騷擾 且二口兩島許倭人捕魚給路引收稅譏察往來法莫善篤 今若罷之恐貽邊患 上從之 綾城又建議 吾東方當三國口峙之時國各有十萬兵 本朝盡有其	관이 건의하기를, "3도의 주·현이 개 이빨처럼 서로 착잡해서 경계가 바르지 아니하니, 마땅히 큰 데를 베어내서 작은 데와 합병하여 중을 기하도록 하고, 또 경상도의 지세포, 조라포와 연화도, 육지도 등은 모두 없애 버려야 옳다."하니, 공은 아뢰기를, "주·현을 착잡하게 만든 것은 대소가 서로 유지하는 제도 때문이니 하물며 경계를 그어 놓은 적이 이미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변경한다면 백성이 반드시 소란할 것이며, 또 두 포구와 두 도서는 왜인에게 고기 잡는 것을 허락하여 길을 빌려주고 세금을 받으며 왕래를 정찰하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파한다면 변방의 환난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이를 따랐다. 능성은 또 건의하기를, "우리 동방 삼국이 술밭처럼 대치하여 있을적에는 나라마다 각기 십만의 병력이 있었는데, 본조에서는

〈6면으로 계속〉

운영회비(6~8월)		단위:원	개인증보비(6~8월)		단위:원	택규(충의공)	20,000	단체증보비(6~8월)		단위:원	
이름	금 액		이름	금 액		복규(충의공)	20,000	이름	금 액		
광옥 고문(서울 강남)	100,000		광석(전남 구례)	100,000		계희(충의공)	20,000	찬성공파종중(회장 유광)	3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	500,000		용구 운영위원(전남 진도)	100,000		동희(충의공)	20,000	평해공수원종중(회장 진수)	20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	200,000		광(서울 노원)	100,000		관희(충의공)	20,000	충주종친회(회장 수희)	200,000		
천식 자문위원(인천 미추홀)	200,000		광세(서울 송파)	100,000		상은(충의공)	20,000	노림익상종중	3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	100,000		근준 조직부회장(경기 김포)	100,000		양수(충의공)	20,000	합 계		730,000	
규백 부회장(화양공파 회장)	1,000,000		영태(경기 용인)	60,000		문석(충의공)	20,000				
무희 부회장(충의공파회장)	500,000		옥동(서울 영등포)	60,000		충수(충의공)	20,000				
진수 기획부회장(서울 동대문)	500,000		상웅(경북 울산)	50,000		장규(충의공)	20,000				
명수 부회장(강원도종친회장)	500,000		상수(전북 익산)	50,000		문수(충의공)	20,000				
근준 조직부회장(경기 김포)	500,000		충일(경남 진해)	50,000		준희(충의공)	20,000				
경 부회장(인천시종친회장)	500,000		동권 겸임이사(경기 군포)	50,000		찬규(충의공)	20,000				
재용 겸임이사(경기 김포)	200,000		동훈(경기 파주)	50,000		00(충의공)	20,000				
영섭 겸임이사(경기 김포)	200,000		충화(강원 원주)	50,000		00(충의공)	20,000				
상효 겸임이사(인천 강화)	200,000		상무(경기 화성)	50,000		00(불명)	20,000				
동권 겸임이사(경기 군포)	200,000		양섭(전남 화순)	30,000		준석(경남 하동)	2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동구)	200,000		승균(경북 대구)	30,000		경석(서울 송파)	20,000				
규아 겸임이사(경기 김포)	200,000		홍교(경북 대구)	30,000		상협(경기 시흥)	20,000				
성옥 운영위원(서울 강북)	100,000		동석 자문위원(전남 광주)	3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동구)	2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	100,000		정웅(서울 송파)	30,000		인석(세종시 연서)	20,000				
합 계		6,000,000	기인 자문위원(경남 창원)	30,000		재술(전북 김제)	20,000				
			충수(충북 진천)	30,000		봉수(전남 광주)	20,000				
일반찬조금(6~8월)		단위:원	상훈(경기 성남)	30,000		만중(강원 원주)	20,000				
이름	금 액		태문(경기 용인)	3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익구 제전부회장	300,000		의성(경기 화성)	30,000		덕수(서울 금천)	20,000				
삼랑 수석부회장	200,000		무희 부회장(충의공파 회장)	20,000		태식(서울 동작)	20,000				
을수(경기 인천)	200,000		상기 운영위원(충의공파)	20,000		양수(경남 창원)	20,000				
기복(경기 안산)	100,000		무희(충의공)	20,000		기엽(경남 사천)	20,000				
정희(서울 금천)	100,000		종찬(충의공)	20,000		합 계		1,930,000	합 계		397,300,000
합 계		900,000									

<5면에 이어>

제10. 강원 황해 평안 도체찰사 地而軍額反不及 請盡刷漏戶隱丁編之行伍 上從之 有司務欲增額一家十丁簽九爲兵民民不能堪 公啓曰 兵務精不務多請減止 上稱善 己卯爲公爲永安江原黃海平安道都體察使 公撫禦措置動中機會 上賜書褒美 庚辰加崇祿 上西 幸公迎謁 上勞慰之駕至順安將還 公請扈從 上曰國之長城不可動其往鎮之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군의 수효는 도리어 미치지 못하니, 누락된 호구와 숨은 병정을 낱낱이 적발하여 군대에 편입시키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께서 그대로 하였다. 유사가 액수를 불리고자 하여 한집안에 남자가 열명이라면 아홉 명을 뽑아서 군사를 만드니 백성이 능히 견딜 수가 없었다. 공은 장계하여 말하기를 "군사는 정 한 것에 치중하여 야지 많은 것에 치중할 필요는 없으니 감해주시기를 청합니다."하니, 임금께서 "잘한 생각이다" 하셨다. 기묘년에 공이 영안, 강원, 황해, 평안도 체찰사가 되었다. 공이 무마하고 조치하는 것이 모두 때에 맞으니 임금께서 교서를 내려 그 아름다움을 포상하였다. 경진년에 승록대부를 더하였다. 임금께서 서쪽을 순행하시게되어 공은 마중 나가 뵈오니, 임금께서는 노고를 위로하시고 어가가 순안에 이르렀다가 장차 환궁하려 할 적에 공이 모시고 가겠다고 청하니 임금께서는 "나라의 장성이니 동요되어서는 안되니 가서 지키도록 하라." 하였다.
제11. 6진 친정 辛巳加輔國崇祿上黨府院君兼判兵曹國家自庚辰北征而後諸種野人在處作耗六鎮騷然 上大怒欲親征 公啓曰小醜偷生穴中乘間竊發 臣雖驚慟足以制之 上喜曰 公請行吾無憂矣 陛辭之日啓曰 臣請以計降之 不願主事首級也 上曰 閩外之事任卿制之 公到六鎮大修攻具先示威武 令諜者語賊曰 保妻子愛廬	신사년(1461)에 보국승록 상당부원군 겸 병조판서를 겸임하였다. 국가에서 경진년에 북정이 있는 뒤로부터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6진이 소란스러웠다. 임금께서 크게 노하여 친히 정벌하고자 하니 공은 장계하기를, "신이 비록 노둔하고 비겁하오나 족히 제지할 수 있사옵니다." 하니, 임금께서 "내가 근심이 없겠다" 하였다. 대궐에 나아가 하직을 고할 적에 공은 아뢰기를, "신이 계책으로써 항복을 받고자 하오며 한갓 목을 베어 바치는 것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곤외의 일은 경이 임의로 처리하라." 하였다. 공이 6진에 당도하자 크게 공격할 기구를 수리하여 먼저 위엄과 무력을 과시하고 첩자로 하여금 적에게 말하기를, "처자를 안보하고
제12. 6진 친정 舍人情所同 汝豈無是心 汝等速降 口口不然當探人殄殲 爲期賊曾來謁日子有罪父當答之 子若改過撫之可也 願公活我 公待之如初 諸種野人相率納款 自後三十餘年北門無警公之力也 壬午夏拜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仍兼四道體察使 癸未陞左議政 將巡四道 命東宮餞之 甲申公啓義州下流無鎮如有賊邊	가옥을 사랑하는 것은 인정이 마찬가지이니 너희들이 어찌 이 마음을 없겠느냐. 너희가 만약 속히 항복한다면 그만 두 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깊이 들어가서 모두 죽이고야 말 것이다." 하니, 기일이 되어 적 추장이 와서 뵈고 하는 말이, "자식이 죄가 있으면 아버가 당연히 형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허물을 고친다면 무마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원 하건대 공은 우리를 살려 주소서." 하니 공은 대우를 그전과 같이하니 여러 종족의 야인들이 모두 와서 항복하였다. 후로부터 30여년 북문이 위태로움이 없었으니 공의 힘이다. 임오년 여름에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과 4도체찰사를 겸직하게 하였다. 계미년에 좌의정이 되었고, 장차 4도를 순찰하게 되자 동궁에게 명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갑신년에 공이 장계를 올리기를, "의주의 하류에 진이 없으니, 만약 적이 변란을 일으키면 (외로운 성이 응원이 없고,)

을사늑약 120년, 끝까지 체결 반대한 애국지사 한규설 대감

자신을 '식지 않는 송장' 표현...고양시에 소박한 묘역만 남아

이토 히로부미 주재 회의서
호통치며 반대하다 면직

1905년 11월17일,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화 계획의 예비 수단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을사늑약이 올해로 체결 120년째를 맞는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불평등 조약으로 원명은 '한일 협상조약'이며, '제2차 한일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며, 강제로 체결해 '늑약'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조선의 모든 외교권은 일본에 양도 된다'. '일본은 조선의 모든 외교적 문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반대도 할 수 없다' 등이다.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매수한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등 소위 '을사오적'은 오랜 세월 많은 이에게 매국노의 대명사로 꼽혀왔고, 이들과 달리 지금의 총리에 해당하는 참정대신 한규설(韓圭晄, 1856~1930. 안양공파 29世. 字 舜佑. 號 江石.) 대감은 끝까지 반대한 애국지사다.

대한제국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을사늑약(乙巳勒約) 회의에 참석한 한규설대감의 참모습은 회의 석상에서 잘 나타난다. 당시 조약이 체결됐던 덕수



한규설 참정대신

궁 중명전 회의에서 국권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주한 일본 공사로 을사늑약 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하야시 곤스케(林勸助)가 함께 자리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제국 8명의 대신 중 조약에 찬성한 이는 박제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이근택 등으로 지금으로 보면 국가 핵심 내각이 매국 조약을 체결한 셈이다. 반대한 이는 한규설, 이하영, 민영기 3명이었지만 이하영, 민영기는 을사늑약 체결 후 친일파로 돌아서 친일 기구인 중추원 고문을 역임하고, 각각 자작, 남작 등의 작위를 받았다. 민영기, 이하영에 이어 이재극(궁내부대신)까지 가세해 을사늑약 후에 가장 적극적으로 일제에 부역함에 이들은 '을사삼흉'이라 불린다.

한규설대감은 반대 의사를 끝까지 굽히지 않다가 세가 불리함을 깨닫고 회의 석상에서 통곡했다. 이 때문에 중명전을 포위하고 있던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중명전 마루방에 감금됐다가 나중에 면직되었다. 중명전 회의장에서 한규설대감은 이토에게 "당신이 우리를 대포 앞이나 칼날 앞에 두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앞에 두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협박이나 생사의 위협



한규설 대감 묘

이 나를 움직이겠는가?" "사직은 무겁고, 임금이 가벼우니 비록 칙령이 내려졌다 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언행이 한결 같았던 한규설대감은 1930년 1월 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미랭시(未冷屍·식지 않는 송장)'로 표현했다. "나는 '미랭시'요. 산송장이니 다름없소. 을사년 이후 말도, 듣지도 않으려 했더니..."

한규설대감은 1910년 국권피탈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수여 받았으나 거절했다. 1920년 이상재 등과 조선교육회를 창립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펼쳤고 민립대학기성회를 만들어 교육 발전을 통한 국권 회복을 시도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했

다. 그 뒤 스스로를 죄인이라 하며 첩거하다 1930년 11월 8일 타계하면서 "나는 죄인이니 부고를 내지도 말고, 장례도 간단하게 치르라"는 유언을 남겼다.

한규설대감의 묘역(고양시 향토 유적 25호)은 원흥동 유진민속박물관 뒤 80m 떨어진 산 중턱에 남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배위 정경부인 밀양박씨와의 합장묘(辛坐)이다. 봉분 주위로 호석을 둘렀으며 특히 무궁화를 조각한 것이 마치 애국심을 나타내는 듯하고, 호석에 조각된 사자 매란국죽과 묘비 및 상석, 석양 등 기물들의 정갈한 배치가 지조 높았던 대감의 성품을 느끼게 한다. 화려하지도 않고 큰 규모도 아닌 평범한 묘지이다.

시조묘역 정화사업 시행

청한산악화·제전위원회 협조 봉사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8월 31일(일), 집행부 임원 및 청한산악회(회장 삼랑)와 제전위원회(위원장 의구)의 협조로 시조묘역의 환경정비·정화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태락회장을 비롯해 근준·의구·동권회장 등 30명의 일가 회원분들이 참여하여 봉사를 하였다. 시조부군 묘소에 고유제를 봉행한 후 시조묘역 진입 계단 우측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야자수 매트를 새로이 깔았고 조경수목과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진입 계단 좌우로 토양을 정비하고 맥문동 15,000주를 식재하였다.

태락회장은 무더운 날씨임에도 시조묘역 정화사업 봉사에 참여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으며, 함께 참여해 봉사한 일가분들은 날씨가 덥고 힘들기는 했지만 시조 묘역 정화사업에 참여함은 후손의 도리이자 선조님의 음덕에 보은하는 뜻깊고 보람된 일과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맥문동은 비짜루과의 여러해 살이 약초로 산지의 나무 그늘에서 자라고, 높이는 30~50cm 정도로서 뿌리줄기가 짧고 굵으며, 잎은 짙은 녹색이고 꽃은 여름에 연한 자주색으로 피는데 마디마다 3~5개씩 모여 달려 길이 8~12cm의 총상꽃차례를 이룬다. 내한성과 내



봉사자 일가분들이 맥문동을 식재하고 있다

음성이 매우 강해 한겨울에도 성장만 멈출 뿐 지상부가 마르지 않고 푸른 상태를 유지하며, 그늘에 특화되어 있으며 꽃, 잎, 열매가 모두 관상 가치가 있어서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나무 그늘이 쳐서 잔디가 못 자라는 곳에 잔디 대신으로 심는 식물이다.



시조묘역 정화사업 기념

정화사업 봉사자 일가

근준.의구.달섭.동권.경.기학.기목.상태.영남.성길.상덕.광석.창익.재철.현수.현섭.명덕.명섭.주호.상효.복연.동학.상욱.웅.시근.영자.옥분.순자.인숙(무순.직책 생략)

중기부 장관에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올해를 새로운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는 원년으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사진)가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취임했다.



1세대 정보기술(IT) 분야 기업인으로 네이버가 국내 선두 인터넷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네이버 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표방한 '프로젝트 꽃'을 키운 인물이기도 한 한성숙 장관은 컴퓨터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다 엠파스를 거쳐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합류했다.

이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을 맡았고, 2017년

네이버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돼 5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이 기간동안 네이버는 라인과 네이버 웹툰 등으로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스마트스토어 사업을 키워 국내 최대 커머스 회사로 성장했다.

대통령실은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인더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기부 육성 전략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중소기업은 고용과 수출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중소 수출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 주역화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 체계 마련, 고용보험 지원, 화재공제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예산 신속 집행, 채무부담 경감, 고정비용 완화, 폐업·취업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AI 분야 스타트업들이 제조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한 후 '올해를 새로운 벤처 창업 붐이 일어나는 원년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성숙 장관 주요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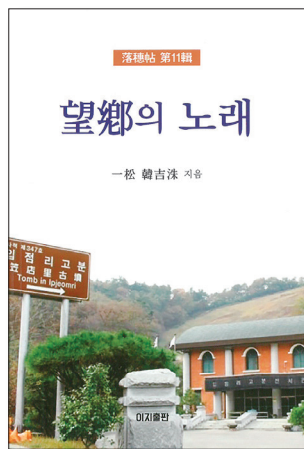
△1967년생 △의정부여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월간 PC라인 기자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NHN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네이버 서비스본부 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13대 회장 △네이버 유럽 사업개발 대표 △네이버 고문 △중기부 장관

길수회장, 落穂帖 제11집 「望郷의 노래」 출간



서원군과문중 길수회장(사진.시인, 수필가)이 지난 7월 말 낙수첩 제11집 「望郷의 노래, 사진」을 출간(이지출판)하였다.

공직에서 정년퇴임 후 한택문학과 현대문예를 통해 수필과 시로 등단, 늦깎이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길수회장은 2010년 10월에 낙수첩 창간호인 제1집「금혼일」을 출간한 이래 2012년 제3집「여명의 길」 2015년 제5집「가슴에 흐르는 강」 2020년 제8집「별이 빛나는 밤」 2024년 제10집「망향의 언덕」에 이어, 지금은 타향처럼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역사와 옛정취가 서려있는 고향(익산시 웅포면 입점리)을 그리는 향수와 애착심을 담은 시와 수필을 같이 묶어 300여 페이지로 제



11집「망향의 노래」를 출간하였다.

2012년 제2회 서울 시우문학상과 2018년 한택문화사 수필부문 대상, 2019년 흰돌 원동영 문학대상, 2022년 서포 김만중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시우문인회장과 한택문학가협회 명예회장, 현대문예작가회 회원, 서원군과문중회장, (재)청주한씨장학회 감사, (재)임피중학교 동문장학재단 이사장 등 종사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一松吉洙회장은 노익장과 열정으로 많은 존경과 신망을 받는 원로이시다.

“시조 위양공부군 을사년 세향 안내” 일가 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11월 20일 (음 10월 1일.목) 오전 11시
- 장소: 시조부군 묘역 (청주 상당구 남일면 가산길 140-8)
- 의례: 시조 세향 및 4위단 (2·3·4·5세) 세향 봉행
- 식전행사: 중앙회장 인사, 내빈 축사 및 격려사
- 행사준비(중식 등)를 위해 참석하시는 분은 중앙중친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720-6370). 세부사항은 추후공지(홈페이지 등)

청주한씨중앙중친회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부 안내

존경하는 임원 및 일가여러분!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만 송구한 마음으로 운영회비 및 종보구독료 납입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및 일가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운영회비와 종보구독료(년 2만원)는 청주한문 100만 중친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중앙중친회의 운영 재원입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계좌송금: 국민은행 009901-04-016841.예금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 ▲종보에 첨부된 지로용지 이용(입금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 등 기재)
- ▲성명만으로 입금 시 중앙회로 연락 요함(동명이인 다수, 02) 720-6370/1)

仲秋佳節

존경하는 청주한문 일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청주한씨중앙중친회 임직원 일동

